

# 촘스키 이론, 그 총체적 반성

강명운

## 1

최근에 촘스키(Chomsky)는 최소주의 이론에 관련된 여러 논의들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창하였다.

- (1) 언어는 super-engineer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 (2) 영장류로부터 인간으로의 진화과정에서, 인간의 언어가 디자인된 시점은 그 영장류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A-P 기관)과 명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C-I기관)을 가지게 된 이후이며, 언어기관은 이 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solution(해)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이 두 능력과 맞닿아 있는 접합면에서) 가독성조건(legibility conditions)에 대한 최적의 solution(해)이다.
- (3) virtual conceptual necessity(개념적 필연성)의 관점에서 볼 때, 또한 A-P기관과 C-I기관으로도 언어기관에 작용하는 Bare Output Condition(필수출력조건)을 생각할 때, 언어기관은 매우 단순(minimalist)할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그 동안 해 온 GB이론에는 군더더기가 많이 있으므로, 그들을 다 버리고, 최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1)에서 super-engineer란 누구인가? 그는 인간의 언어기관을 디자인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아마도 인간은 아닐 것이다. 아직까지 인간 중에 인간의 언어기관과 똑같은 언어기관을 디자인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별 수 없이 super-engineer는 신이나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2)(3)의 진술은 그 신이 인간의 언어를 디자인한 방법 내지 시기에 관한 쉘스키의 가정이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3)의 소위 “virtual 개념적 필연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개념적 필연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의 개념적 필연성일까? 쉘스키의, 즉 인간의 개념적 필연성일까, 아니면, 언어를 디자인한 신의 개념적 필연성일까? 이 용어를 쓴 사람이 인간이므로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개념적 필연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개념적 필연성과 인간의 언어를 디자인한 신의 개념적 필연성이 같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신은 인간의 언어기관을 디자인할 수 있는 자이므로, 즉,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한 자이므로, 그가 지닌 개념적 필연성도 인간의 개념적 필연성을 초월했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개념적 필연성이 어떠어떠하다는 주장이 신의 능력을 서술할 때 그대로 변화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디자인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반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하느님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적은 없다. 요점은 이 언급에서 쉘스키는 자신의 능력을 비추어 그것을 신에

게 투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그 신 또는 super-engineer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다. 즉, 그는 인간의 언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초월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 인간의 관점에서 본 개념적 필연성을 적용하려는 것은 실수라고 보아진다.

이러한 방식은 바로 인간과 인간이 만든 컴퓨터에도 적용된다. 인간은 컴퓨터를 만들면서, 컴퓨터의 핵심적 기능을 입력-출력(input-output)를 연계시키는 여러 개의 모듈로써 구성했다. 즉, 컴퓨터는 입력에 어떤 상징체(symbols)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여러 개의 모듈에 통과시켜, 그 상징체들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출력을 얻게 하는 장치이다. 이것을 “정보처리(information-processing)모델”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특히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컴퓨터에 적용되는 이런 존재양식을 다시 그 컴퓨터의 디자인한 자(者)인 인간에게 대입하여, 그것을 인간의 언어장치, 인지장치의 모델로 삼으려고 한다. 즉 앞서는 인간의 어떤 존재양식을 그 인간을 디자인한 자(者)인 신에게 투사시켰는데, 이제는 인간이 디자인한 컴퓨터의 존재양식을 인간에게 투사하여 인간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츨스키의 최근의 논문 Beyond Explanatory Adequacy(2001)는 언어기관의 하나의 원리인 “경제성”을 마이크로칩 디자인에서의 “minimization of wire length”(와이어 길이의 최소화)에 비유하는 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현대언어학과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에서 정보처리 모델을 인간의 존재양식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다.

이제 앞서의 (2)(3)에서 보이는 다른 문제에 대해 언급하겠다. 츨스키가 즐겨 사용하는 “A-P 접합면(interface)과 C-I 접합면(interface)의 가

독성조건에 대한 최적의 해답(solution)이 언어기관이라”는 말은 A-P 접합면과 C-I 접합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때만 유의미한 것이다. 즉, 문제로서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 두 방정식에서 하나의 해를 끌어낸다고 할 때는, 그 문제에 나타난 두 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해를 구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를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를 구할 수 있을까? 즉 문제로 주어진 두 개의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해를 구할 수 있을까? 현재 A-P 접합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 또한 C-I 접합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의 solution(해)를 알 수 있는가? 더구나, 그 해로부터 언어기관이 최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도출될 것인가?

물론, 촘스키의 견해도, “언어기관이 그 두 수행기관의 접합면의 최적의 solution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두 수행기관의 접합면의 성격을 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즉, 촘스키의 이 언급은 두뇌 속에 존재하는 언어기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이 명제라는 이야기이다.

얼마 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 김의수 군과 토론을 가진 적이 있다. 김의수 군은 위의 (2)에서 “언어는 가독성조건들에 대한 최적의 해이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두뇌에 존재하는 언어기관을 생각할 때, 생각 가능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점을 저에게 일깨워주면서, 이것은 데카르트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언급과 그 성격상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데카르트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 가능한 최소한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인 것처럼, 촘스키의 경우도 언어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언어는 가독성조건들에 대한 최적의 해이다”의 내용이 우리가 언어기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견해가 타월하다고 생각되며, 아마 쭈스키가 이 언급을 책에 썼을 때도, 김의수 군이 언급한 바대로 데카르트적 의미에서 썼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는 가독성조건들에 대한 최적의 해이다.”라는 쭈스키의 언급의 내용은, 언어를 앞서 언급한 바 “정보처리기관”으로 상정했을 때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데카르트가 마음이 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명제로 표시한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 것처럼, 쭈스키 역시 언어기관을 다른 모듈과는 독립된 정보처리기관의 모듈인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위의 “언어는 가독성조건들에 대한 최적의 해이다”라는 명제가 언어기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제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앞서, 언어기관을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보처리기관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컴퓨터의 열개를 인간의 마음의 열개에 투사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좀더 논의를 진행하면서, 언어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언어기관을 정보처리기관으로 간주하는 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다시 이야기하겠다.

다시 앞서의 논의로 돌아가서, 쭈스키의 “언어는 가독성조건들에 대한 최적의 해이다”라는 조건 그 자체는 무해하다고 봐준다고 해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정의 결과, 즉 언어기관이 이 두 개의 접합면에 적용되는 필수출력조건(Bare Output Condition) 때문에, 또는 이 두 개의 접합면에 존재하는 가독성조건(legibility condition) 때문에, 최소주의적(minimalist)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즉, 다시 말하

지만, 그 두 개의 접합면의 성격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완벽한 해로서 언어기관이 최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만일 super-engineer가 신이라면, 그는 인간이 가진 상식을 뛰어넘는 자이므로, 인간의 언어기관을 정보처리기관으로 디자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설사 신이 언어기관을 정보처리기관과 유사하게 디자인했다고 해도, 그가 생각하는 가독성조건은 촘스키가 생각하는 가독성조건과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첨언한다면, super-engineer는 인간의 언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 아주 다른 제약을 가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신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동일한 제약을 가졌을 것이라고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촘스키에 따르면, 최소주의 이전의 이론에는 군더더기가 많고, 그것은 잘못된 일반화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즉, 과거의 GB이론에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은 실제 최소주의적 언어기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학자들의 가공물(artefact)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언어기관이 최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도 찾지 못했다. 아니, 설사, 언어기관이 최소주의적이라고 해도, 과거의 GB스타일의 이론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촘스키의 이야기 속에는 실제의 언어기관에 표상된(represent) 것만이 진짜 언어의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즉, 촘스키는 언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주어졌을 때, 위의 가독성조건을 명제를 선택의 준거(metric)로 삼아야 하며, 이 가독성조건을 만족시킬만 한 것만 언어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A-P의 접합점과 C-I의 접합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적합한 가독성조건이 무엇

인지 알 턱이 없다. 즉, 이 선택의 준거(metric)는 공허(vacuous)하며, 불필요(superfluous)한 것으로 판명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GB이론에서 등장했던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의 여러 가지 이론들은 실제언어에서 정확한 일반화를 얻어내려는 노력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이론적 도구, 여러 가지 개념, 여러 가지 일반화를 얻었으며, 이들 도구, 개념, 일반화가 이 지상의 각종 언어의 연구에 유용했던 것임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본다. 우리는 다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GB이론으로부터 쭌스키의 최소주의로의 전환은 언어자료가 그 전환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쭌스키의 사적(私的)인 “철학”의 전환에 기인한 바 컸다. 이에 비하여, GB이론은 1980년대의 쭌스키의 초기가설을 지지한 세계 각국의 여러 뛰어난 언어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많은 노력의 결집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GB이론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개념, 도구 그리고 일반화가, 혹시 쭌스키식의 언어기관의 “가독성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론이 아니라고 해도, 즉 쭌스키적인 의미에서 “실재적(real)”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에서 언어에 관한 훌륭한 일반화를 얻었고, 해당 자료에 대한 그 이후의 연구를 위해 훌륭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만의 이유 때문이라도 그 GB이론의 연구들이 훌륭한 정통적인 언어학 연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쭌스키의 개인적인 “발상의 전환” 때문에, 과거의 GB이론이 획득한 훌륭한 일반화, 이론, 개념들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건강부회하여 최소주의의 입장에 알맞게 교차야 한다면, 그것은 쭌스키의 개인적 “철학” 때문에, 많은 뛰어난 언어학자들이 각고 끝에 이루어 놓은, 언어자료에 관한 중대한 일반화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아마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 2

앞서, 우리는 쉼스키의 언어기관의 모델이 정보처리모델임을 이야기했다. 정보처리모델이란 하나의 블랙박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블랙박스에는 입력-출력이 존재한다. 그 블랙박스의 입력에 상징체(symbols)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표상이 주어지면, 그 블랙박스는 그 상징체로 이루어진 표상을 조작(manipulate)하여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 언어기관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은 언어의 문장들이다.

앞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기관이 이러한 정보처리기관의 모델을 따르게 된 것은 서양사람들이 디자인해낸 컴퓨터 및 그 동안 서양에서 고안된 기타 여러 가지 기계의 작동방식에서 언어기관의 모델을 따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대문명은 인간들이 발명해낸 기계들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은 모두 “기계” 또는 “mechanism” 속에 깃들여 있다 해도 좋겠다.

서양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기계들은 인간의 삶을 좀더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바로 그 기계들 때문에 현대인류는 위협받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나는 3차대전이 어떤 식으로 치러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4차대전이 어떻게 치러질지는 알고 있다. 4차대전을 일으킬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전쟁은 나무와 돌을 사용한 전쟁일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기계를 올바르게 이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 기계에 집착하고, 요즘에 게임에 미쳐있는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그 기계에 “혼”을 빼앗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서양사람들은 그들 문명의 초기 때부터, 자연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들에게 자연은 착취의 대상물이었다. 하지만, 동



양사람들의 태도는 달랐다. 동양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으로 “자연과의 합일”에 주력해왔다.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유가들이 주장했던 “인(仁)”과 “의(義)”의 정신조차도 자연 그대로의 자연에 대해 어떤 인간적인 질서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격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연을 도구화하여 만들어낸 기계 역시 배격하였다. 장자는 기계에 의존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기심(機心)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장자의 한 구절이다.

무릇, 활·쇠뇌·새그물·주살·덧·울가미 등의 지혜가 많게 되자 곧 새들은 하늘 위를 어지럽게 날게 되었다. 낚시·미끼·그물·전대·투망·통발 등의 지혜가 많아지자, 곧 고기들은 물 속을 어지러이 헤엄치게 되었다. 덧, 함정, 그물 등의 지혜가 많아지자, 곧 짐승들은 늪 속을 어지러이 뛰어다니게 되었다. (『장자』 거협)

자공이 …… 한 노인이 마침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굴(지하도)을 뚫고 우물에 들어가 항아리를 안아 내다가는 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애를 써서 수고가 많은데 그 효과는 아주 적었다. 자공이 말했다. “여기에 기계가 있으면 하루에 백이량도 물을 줄 수가 있다. 조금만 수고해도 효과가 큼니다……” 밭일을 하던 노인은 고개를 들고 그를 보자 말했다. …… “나는 내 스승에게 들었소만, 기계[따위]를 갖는다면 기계에 의한 일이 반드시 생겨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계에 사로잡히는 마음[기심; 機心]이 생겨나오.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있게 되면 곧 순진 결백한 [본래 그대로의]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정신이나 본성의 작용이 안정되지 않게 되고, 정신과 본성이 안정되지 않은 자에겐 도가 깃들지 않소……(『장자』 천지)

한편, 유가사상가들은 자신의 몸을 잘 추스린다면, 이 세상과 자연 그 자체가 스스로 변할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도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이 구절은 자기가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리면, 가정이 가지런히 되고, 나라가 잘 다스려

지며, 세상 또는 우주가 평안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용의 구절은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오직 천하의 '자성(至誠)이고서야 능히 그 성(性)을 다할 수 있나니 그 성을 다할 수 있으면 능히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이요,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면 능히 '물(物)의 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이요, 物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면 천지(天地)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을 것이요,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함께 병립하게 된다. (이동환 역해)

唯天下至誠，爲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이 구절에서 “성(性)을 다한다”라는 말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위의 구절에 대한 주자의 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성품을 다한다’ 함은 덕이 성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 욕심의 사사로움이 없어서, 나에게 있는 하늘의 명령을 살피고 따름에, 크고 작고 정밀하고 거친 것들을 터럭만큼도 다하지 않음이 없음이라. (김수길 역해)

盡其性者。德無不實，故無人欲之事。而天命之在我者，察之由之，巨細精粗，無毫髮之不盡也。

이상으로 보면, 서양문명은 일찍이 “기심(機心)”을 중시하였고, 그 기심 때문에, 특히 서양문명의 후대에, 즉 “발견의 시대”에, 전쟁무기들을 만들어 여러 곳의 정복전쟁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가 현재 편리하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바로 이러한 “전쟁과학/기술”의 부산물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하지만, 서양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기계문명에 많은 회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 예인데, 그가 나치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의 당대에 제작되어 유포되기 시작한 여러 가

지 기계들이 췁부유럽을 기계화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췁요 이유였다. 그는 여러 가지 기계들 때문에 독일의 평안한 농촌에서 “가정성 *homeness*”이 파괴되어 간다고 생각하였다.

하이데거는 서양사람들이 고래로 어떤 물건을 “질료와 형식”(matter and form)으로 구분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기계문명을 이론 시초의 이유라고 생각했다. 서양사람들은 어떤 형식을 갖지 못한 “단순한 질료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하나의 도구로서의 형태를 가질 때만, 그들에게 그것은 의미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 도구가 되면, 실제의 “질료자체”는 사라지고, 그것에는 오직 도구라는 형태로서의 의미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질료자체”를 “자연성”이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질료자체가 도구화되는 과정에서, 즉 기계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의 자연성은 상실되고, 도구적 편리함만이 남는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기술문명(technology)에 대한 반대견해는 뉴턴과 같은 순수한 과학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순수한 과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 볼 수 있다: 뉴턴의 물리학과 같은 물리학은 단순히 세계관을 바꾼 혁명적 과학적 이론이며, 그 이후에 그로부터 발전한 기술은 단지 그것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우연적 결과이다 라고 말이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뉴턴 및 그 이후에 발전된 물리학은 이미 그것의 기술적 이용을 염두에 둔 과학이었다고 말한다. 이것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뉴턴 및 그 이후의 물리학은 순수한 과학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기심(機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과학이라는 것이다.

언어의 문제로 돌아와서, 췁스키의 언어학 역시 순수과학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언어기관을 정보처리기관의 모델로 파악했다는 것은 그것이 기심의 발로이며, 컴퓨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인간의 언어

기관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그 전체에 깔려있다고도 보겠다. 물론 언어 기관이 컴퓨터나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기관을 다른 매체에 완벽히 구현시키는 작업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고, 동시에 인간의 언어기관의 다른 매체로의 완벽한 구현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촘스키의 언어에 대한 초기가설에서 정보처리기관의 모델을 선택한 바로 그 사실 자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과학자 촘스키는 언어기관이 심리적으로 내재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언어의 완벽한 내부구조(architecture)를 알기를 원했다. 동시에 그러한 언어기관의 내부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정보처리모델을 선택했다. 그러나 정보처리모델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촘스키 자신이 그러한 언어기관의 컴퓨터적 구현라는 기술적 목표를 순수한 과학적 탐구에 우선시킨 것은 아니다. 정보처리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좀더 명시적이고 반증가능한 이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룰 것이지만, 필자는 언어능력을 정보처리모델로 생각할 때는 결코 언어능력의 실제의 원상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 맞는다면, 정보처리모델을 채택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촘스키는 자신이 처음에 원했던 인간의 언어능력의 완전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촘스키의 정보처리모델은 컴퓨터적 구현을 위해 적절한 모델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여러 전산학자들로부터, 촘스키의 언어기관의 이론이, 그것이 정보처리의 모델에 기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적 구현에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촘스키의

언어기관모델이 입·출력을 가진 정보처리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출력의 구조가 다른 매체로 구현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즉, 췁스킴의 모델에서 “의미구조”는 통사구조의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다. 따라서, 필자는 「췁스킴의 문제의 해결가능성에 관하여, (1988)라는 논문에서 췁스킴의 언어기관은 확인장치(checking device)로 간주되는 것은 적합할지 모르지만, 산출장치(production device)로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전산학자들에 의하면, 췁스킴의 모델은 너무 복잡성(complexity)이 크다고 주장되고, 그들은 나름대로 다른 입출력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을 종합할 때,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췁스킴의 언어기관모델은 정보처리기관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언어능력의 원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동시에, 그것이 특이한 입·출력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언어의 실제적, 전산적 구현이 어렵다는 견해 역시 자주 표출되고 있다. 결국, 췁스킴의 언어이론은 언어능력의 원상에 이를 수도 없고, 실제의 구현에도 많은 장애가 있다면, 그 이론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3

언어는 변화하는 어떤 실체이다. 또한 언어가 변화하는 이유는 그 언어가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공동생활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존재함으로써, 언어가 변화하는 것이다. 언어는 그 발화된 문장들을 들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화되는 것이며, 그렇게 인간이 상대자에 대해서 발화를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다. 즉, 언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섬에 홀로 남겨졌다면, 그

언어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언어의 변화의 역사에 있어서, 단순히 어휘들만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 문법체계가 변화한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변한 언어 중의 하나는 영어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어의 문법적 변화는 매우 급진적이었다. 영어는 본래 독일어나 화란어처럼 동사가 두 번째 위치에 놓이는 V2언어였다. 하지만 현대영어는 독일어나 화란어적인 의미에서 V2언어가 아니다. 또한, 옛날의 영어는 화란어나 독일어처럼 내포절에서 서술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는 언어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현대영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또한 고대 및 중세의 영어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현상이 복잡했고, 명사자체의 복수형체계도 복잡했으나, 현대영어에서 이러한 일치현상은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났을까? 단순히 생각해서, 해당 언어의 화자들이 사회 속에서 다른 화자들에게 발화를 수행했고, 여러 사람들에 의한 이러한 발화의 집적이 어떤 형태로든 해당 언어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화의 집적이 어떻게 하여 언어의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언어학이나 언어의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확실한 이론이 없다. 언어의 변화는 유행과도 같을지 모른다. 5명의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옷을 입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그 유행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5명만 얼마동안 입다가 시들어 버릴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그 5명이 7명이 되고 그 이상으로 퍼져나가다가, 언젠가는 대부분의 이화여대 학생들이 그 스타일의 옷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유행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분야는 아마도 어떤 사회동력학적 또는 카오스적 이론의 지평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유사점이 있다. 흔히 옷의 유행은 파리에서 주도한다

고 생각한다. 왜 그들이 유행을 주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꽤 많은 사람들이 파리의 유행을 하나의 지침으로 삼는다. 언어도 유사한 점이 있다. 자세히 논의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지만, 언어는 대체로 한 나라의 왕궁이나 귀족들의 언어가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Norman Conquest 이후 궁정에서는 불어를 사용했다. 이 때 영국의 지방의 많은 고위 행정관들도 불어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영국의 지방에 사는 평민들은 불어를 독자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어단어 및 불어식의 말투가 영어에 침투되었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츨스키의 언어모델은 “이론적” 모델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츨스키의 언어모델은 누가 그 말을 하게 되는지, 그 언어가 발화될 때의 실제상황이 무엇인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언어의 문법의 형식적(formal)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고, 그것의 통시적인 발화의 역사 및 그 사회적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츨스키의 언어기관에 대한 이론은 그 언어기관의 역사적, 사회적 사용에 따라 왜 그 기관의 내부구조가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 없다. 즉, 그 언어기관에는 그 언어기관을 소유한 화자의 “몸”의 차원은 완전히 추상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그 츨스키의 언어기관을 변경시키려면, 누군가가 그 언어기관 내부의 프로그램(wire)을 다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물론, 방금 전의 표현은 약간 과장된 것이다. 츨스키의 언어학을 하는 연구자 중에서도 언어의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어: 플라톤주의적 견해」(2000a)라는 필자의 논문에서 밝힌 바 있듯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언어의 변화는 어린이가 언어를 배울 때의 습득 과정에서 언어기관 내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매개변항)을 바꾸어 세팅할 때, 언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츨스키의 이

론에서 언어기관이 그 습득자가 어렸을 때 항상상태(steady state)에 달하면 그 이후에는 변화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어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에는 문제가 있다. 언어습득자인 어린이의 매개변항이 바뀌어 세팅되기 위해서는, 그 어린이의 언어환경이 이미 그에 적절하게 바뀌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언어환경이란, 이미 기존하는 화자들이 구성하는 환경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의 언어환경을 구성하는 기존화자들의 언어가 전세대와 좀 다른 것이었다면, 그 기존화자의 언어는 어떤 과정에 의해 바뀌어 있었을까?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언어습득하는 어린이의 환경으로 기능하는 그 기존화자들이 자신의 어린시절에 이미 그 매개변항(파라미터)를 바꾸어 세팅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해당 세대에서 언어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언어의 전달이지 언어의 변화는 아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기존세대의 화자가 성인의 상태에서 매개변항(파라미터)이 새롭게 고정된 경우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촘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후자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언어변화를 “언어습득자에 의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매개변항(파라미터)의 고정”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자들은 스스로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촘스키의 정보처리모델은 언어의 변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론언어학의 역사에서 이러한 약점은 쉽게 만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쉬르 이래로 문법의 형식적 연구에서 통시론과 공시론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분리는 단순한 “작업가설”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어찌면, 언어의 형



식적 구조의 원상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가 변화한다는 사실이 핵심일 수도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다른 매체에 구현한다고 했을 때, 쭌스키의 정보처리모델은 그 언어가 구현된 매체의 발화경험과 그 구현된 언어기관의 형식적 특성을 상호작용하게 할 아무런 도구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그 언어기관이 구현된 매체가 인간의 언어처럼 언어의 변화를 모방하도록 하려면, 그 매체의 언어기관을 뜯고 다시 wire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인간사회에서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은 바로 언어기관의 소유자인 인간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그 언어기관이 어떤 형식적 열개를 가졌다고 해도, 그 형식적 열개는 인간의 언어 발화경험과 어떤 방식이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 이 역시 생명의 특징이라고 보아도 좋다 — 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언어기관의 열개를 탐구함에 있어, 그 언어기관이 그 언어기관의 소유자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과 연동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쭌스키의 정보처리모델은 인간언어능력의 핵심적인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쭌스키의 언어관에 대한 몇 가지 단상」(1999)이라는 논문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쭌스키의 이런 언어관은 데카르트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무척 비슷하다.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내 몸이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 이로부터 나는 내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이며, 그것의 존재를 위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3 vol.) )

이러한 주장은 나 자신이 나의 몸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을 뿐만 아

나라, 이 세계의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도 격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음이 세계로부터 자기독립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부터도 자기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의 비간여성(disengagement)”에 대해서는 여러 철학자들의 반박이 있어왔지만, 가장 통렬한 반박은 하이데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이데거는 데카르트가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세상을 보려하는 철학적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 이러한 데카르트식의 잘못된 분석의 원인은, 현실과 유리된 분석을 통해 사물에 대한 소위 “공평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실존의 시초부터 이미 세상에 스스로 개입(commit)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아주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적 유의미성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세상 속에서 — 즉, 여기,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 Dasein, 현존재 속에서 — 스스로 회귀적(recursive)으로 정의되고,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사물의 존재의 핵심은 일상과 동떨어져 따로 떼어진 이론적인 성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찰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일상적 현실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또한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에 맞닥뜨리며 생활하고 (cope with the world)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선택을 하는 것(take a stance)을 중시한다. 그에게 있어, 현존재란 “될 수 있는 가능성(ability-to-be)”이다.

하이데거는 그의 책 『존재와 시간』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현존재에 개입되어 있는 시간성(Zeitlichkeit)을 중시한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식으로 존재해오며-현재화하는 도래

로서 통일적인 현상을 우리는 시간성이라고 이른다. 오직 현존재가 시간성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만, 현존재가 자기자신에게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라고 특징지은 본래적 전체존재가능을 가능케 한다.”(이기상 옮김[필자부분수정]. 433쪽). 필자가 이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했다면, 이것은 바로 현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시간성으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존재는 시간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파악된다. 현존재를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간주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세상에 맞닥뜨려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사고체계와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설명된다.

쑤스키의 마음/언어에 대한 정보처리기관 모델에는 바로 시간성의 축이 사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것의 형식적 변화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필자가 언급한 대로, 언어는 화자들에 의한 그것의 발화과정에서 형식적인 모습이 바뀌어 간다. 하이데거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중국의 장자 역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 “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사람이 지나치게 기뻐하다 보면, 양에 치우치고, 지나치게 노하다 보면 음에 치우친다. 음양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사계절의 조화가 어지러워지고, 추위와 더위의 균형이 깨어져 도리어 사람의 몸을 해치게 된다. (『장자』, 재유)

다시 요약해서, 하이데거나 장자의 이야기는 곧, 자기자신이 세계에 관하여 어떤 행위를 함에 따라 자신 주변의 세상 또는 전체 세계가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언어의 변화의 역사에 적용

하여 생각한다면, 개개인의 인간들이 어떤 발화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 언어능력이 변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촘스키의 언어에 대한 정보처리적 견해는 인간의 언어의 형식적 측면이, 언어수행인 발화과정을 통해 바뀌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인간의 “몸”을 추상한 언어이론, 즉 인간의 사회적 발화행위 자체를 추상한 촘스키의 언어에 대한 “순수하게 이론적인” 언어이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언어의 형식적 특성을 모두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확실한 이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동역학적 성격, 즉 카오스이론적 성격을 가졌음은 아마도 분명할 것이다. 이런 사회동역학적 관점에 따르면, 언어의 변화는 하나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가 창발(emergence)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창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존적 질서로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에 있어서의 이러한 새로운 창발이야말로, 인간의 언어에 내재하는 어떤 “자유”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언어의 무한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언어변화: 혼돈과 질서」(2000b)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촘스키의 이론적 관점에서는 언어 변화에 있어 가능한 “무한성” 또는 “자유”가 부인되고 있다. 왜냐하면, 촘스키에 따르면, 하나의 개별언어는 인간이 타고난 언어기관 — 즉 보편문법 — 속에 내재하는 매개변항(파라미터)의 값들의 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동일한 언어기관을 생태적으로 타고나고 또한 언어의 변화가 매개변항을 다르게 고정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언어의 변화란 하나의 매개변항의 집합으로부터 다른 매개변항의 집합

으로 이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이다.

#### 4

GB이론이고 최소주의이론이고 간에, 츄스키의 언어관은 생득설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즉, 츄스키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의 형식적 특성의 핵심적 부분이 인간 속에 선천적으로(생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노출되는 각 E-언어들은 이러한 선천적인 I-언어를 촉발(trigger)시키며, 이렇게 E-언어가 촉발(trigger)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언어는 생물학적으로 “성장”하여 사람이 아주 어릴 적에 항상상태(steady state)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생득적인 언어기관을 츄스키는 인간이 가진 시각기관과 심장에 비유한다. 인간의 시각기관과 심장은 인간의 몸 또는 두뇌 속에 하나의 기관으로 생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는 항상상태에 이르면, 마치 인간의 시각기관과 심장의 형식적 특성이 한번 결정되면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기관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상상태에 이르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최소한 2살부터 4살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시기를 “임계시기”라고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떠오르는 것은 중국에서 19세기 중엽까지 계속 문자언어(文言)으로 사용되어 온 한문의 존재이다. 한문은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글로 쓰는 언어이다. 중국에서도 매우 일찍이 한문은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의 언어와 무척 달랐다. 하지만, 중국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직접 글로 옮기는 방법을 잘 몰랐고, 또 그런 언문일치의 말투를 매우 숙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말 즉 중국어가 한문과 무척이나 다른 언어였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엽 백화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한문을 써왔다. 후대의 중국사람들도 한문을 학교(서당)에 가서야 배울 수 있었는데, 그들이 서당에 가는 시기는 앞서 말한 임계시기를 지난 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은 훌륭한 하나의 언어이다. 그 자체로 문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한문에 능숙한 사람은 누구나 비문법적인 한문문장과 문법적인 한문문장을 가려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한문의 존재를 촘스키의 이론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매우 궁금하다.

더구나 중국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의 우리 조상들도 이 한문을 배우고 많은 글과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다. 중국사람들의 경우는 한문의 어순이 중국어의 어순과 유사하였으므로, 한문습득에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문을 배우고 한문으로 글을 쓴 한민족들의 경우, 자신의 말언어의 문법은 한문과 무척이나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 역시 모국어처럼 훌륭하게 한문을 구사하였다. 물론 우리 조상들 역시 그 임계시기를 지나고 꽤 성장한 후에야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던 것이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촘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생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언어기관은 임계시기를 지나고 나면 항상상태(steady state)에 이르며, 그 때에는 그 언어기관이 완전히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이나 뭐 그런 다른 교육에 의해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나 중국사람들이 한문을 쓸 때에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가 매우 궁금하다는 것이다.

언어습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국어의 습득과 제 2언어의 습득을 구분한다. 모국어의 습득은 그것을 L1 습득이라고도 하는데, 앞서 말한 바대로, 어린이가 아주 어렸을 임계시기 내에 습득하게

되는 언어이다. 한편, 제 2 언어의 습득은 그것을 L2 습득이라고도 말하는데, 대체로 그 임계시기를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국어와는 다른 언어의 습득이다.

앞서의 필자의 언급에 따르면, 중국 어린이나 한민족 어린이의 한문 습득은, 그것이 임계시기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제 2 언어의 습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촘스키의 “언어기관”의 가설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L2 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L2 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다(Mitchell & Myles(1998)의 *Second Language Learning Theories* 참조).

- (1) L2의 습득의 경우에도 L1가 습득될 때에 작동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원리가 이용된다.
- (2) L2의 습득과정에 L1의 원리들이 이용될 수는 없지만, L1의 원리들이 하나의 언어습득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원리들이 “복사”되어 L2의 습득에 작용한다.
- (3) L2의 습득의 경우에는 L1의 원리들이 적용될 수 없고, L2의 습득에는 일반적 지능 또는 Problem Solving Device가 이용된다.

이 세 가지를 검토해보면, 일단 (1)의 견해는 촘스키가 받아들이는 견해는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의 한문의 경우, 임계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언어기관이 항상상태에 이르러 “닫히게” 되므로, L1의 습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매개변항의 고정”과 같은 방식은 L2의 습득에서 이용될 수 없다. 따라서, 촘스키의 이론을 따를 경우 위의 (1)의 가능성은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위의 (2)와 (3)의 경우,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2)와 (3)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논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2의 습득방법 중, (2)와 (3) 중에 어느 것이 옳든 간에, L2를 L1으로부터 구별시키는 대표적 특징은, Mitchell & Myles(1998)이 Second Language Learning Theories라는 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완전한 성공”(incomplete success)과 “화석화”(fossilization)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불완전한 성공”이란 L2의 습득에서는 결코 모국어수준의 완벽한 언어습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화석화”는 L2의 습득에서는 언어능력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되어,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관점, 즉 L2 학습에 있어서의 “불완전한 성공”과 “화석화”의 문제를 중국사람들이 쓰던 한문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불완전한 성공”이란 어떤 언어를 L2 습득으로 배운 사람들과는 별도로, 그 언어를 L1습득으로 배운 사람의 집단이 현재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으며, 그 해당 언어를 L2로 배운 사람들은 그 언어를 L1로 배운 사람들의 언어능력에 결코 완벽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일례를 들어, 라틴어를 L1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없어진 다음에도 이 라틴어는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L2로서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은 L1로서 라틴어를 배운 사람처럼 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불완전한 성공”의 의미이다.

이 점에서 한문은 매우 특이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즉, 한문을 L1로 사용한 사람들이 과연 존재했었는지, 만일 존재했다면, 어느 시기까지의 한문이 L1로 사용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는지에 대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한문은 “음운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어의 글자들의 발음은 고대로부터 19세기까지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한문을 발음할 때, 어떤 특정한 시대의 소리로서 발음해야 한다는 규정은 중국의 어느 시대에도 없었다. 따라서, 중국사람들은 쓰여진 한문을 놓고, 시대에 따라 다른 발음으로 읽었다. 한문을 받아들여 문언(즉, 글 쓸 때의 언어)으로 사용한 우리 한민족들 역시 한민족의 한자발음을 이용하여 한문을 공부하고, 글을 썼다.

이런 의미에서, 한문의 경우는 라틴어와는 달리, “불완전한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문이 L2로서 “불완전한 성공”의 특징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없다.

한편, L2의 또 하나의 특징, “화석화”에 대해서는 좀더 확정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 화석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이용의 측면에서 L1은 자신에게 내재한 구조에서 기원하는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진 때문에, 시대에 따라 자유롭게 변할 수 있고, 언어발화에서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L1의 특징을 편의상 “구조기원성”이라고 불러보기로 하자. 한편, L2의 경우에는 그것이 모방에 근거하며, 완전한 구조의 내재화가 어려우므로, 그 습득자의 능력은 어느 단계에서 비유연성을 띠고,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L2의 특징을 편의상 “구조모방성”이라고 불러보기로 하자.

이제 한문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한문은 여러 시대에 걸쳐 변화를 겪기도 했고, 사용자에게 따라 새로운 용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바로 한문의 능력이 구조모방적이기 보다는 구조기원적이라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송대의 주자가 기록한 『주자어류(朱子語類)』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쓰여진 한문은 고대의 한문과 매우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에는 단순한 어휘의 변화가 아니라 문법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때문에 『주자어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 허탁·이요성은 그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주자어류』의 문체는 정통 한문 문어가 아니다. 사서삼경에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덤벼들었다가, 당송대의 속어체의 숲에서 길을 잃게 되어 있다.

한문을 단지 구조모방에 근거한 L2라고만 생각할 때, 『주자어류』가 보인 이러한 한문의 시대적, 개인적 변이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즉, 비록 한문이 임계시기를 지난 이후에 습득된 것이기는 해도, 이것은 구조기원성에 근거한 모국어(L1)와 중요한 측면에서 유사한 것이다. 즉 한문은 화석화된 언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한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저는 앞서, 한문으로 글을 표기한 한민족들 역시, 한문을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후퇴하여,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한문은 그것이 모국어와 너무나도 다른 덕분에 하나의 L2에 불과했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중국인들에게 한문은 L2도 아니고 L1도 아닌, 그 중간의 어떤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한문은 임계시기를 지난 다음에 배운 언어이므로, 정의상 L1은 아니다. 중국인들에게 L1은 중국어이지 한문은 아닌 것이다. 한편, 우리 한민족이 쓴 한문과는 달리 중국인의 한문은 구조기원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 즉 화석화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L2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L1.5정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문이라는 언어가 L1.5일 수도 있고, L2일 수도 있다고 볼 때, 이 구조모방성과 구조기원성을 양끝으로 하는 스케일에 어떤 점진성(degree)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줌스키의 언어관에 따르면, 언어기관은 생후 4년쯤에 항상상태(steady state)에 이르므로, 언어는 그 항상상태에 의한 모국어(L1)이거나, 이 이외의 것, 그



현상은 곧, 중심점 또는 가운데 꼭지가 특정한 원초적 구조덩어리(예: 날꽃들 florets)로부터 이탈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주어진 영역 속에 어떻게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 구조를 배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필자역)

같은 책 73 페이지에는:

[위와 같은 배열에 이용되는] 수법이 유전자들 속에 표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의 성장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 이 사실이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해당 식물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나선을 이루라는 유전적 지시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보나치 수열의 특정한 정수를 구현시키라는 유전적 지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단지 후천적 발생(epigenesis)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세부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부호화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오직 “성장의 종류” 같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필자역)

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그 해바라기의 나선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는 이유가 유전적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공간에 체계적인 모습으로 가장 많은 날꽃들을 나선으로 가득 채우려 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즉 날꽃들의 나선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는 것은 주어진 공간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은 숫자의 날꽃들의 나선을 채울 수 있기 위한 최적의 해(optimal solution)인 것이다. 그러나 이 해는 자연의 [수학적] 법칙에 따른 결과 얻어진 것이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언어학의 측면에서 다시 말해 보겠다. 인간이 어떤 규칙-지배적인(rule-governed) 행위를 보인다고 하자. 위의 논의의 교훈은, 인간이 규칙-지배적인 어떤 행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인간의 두뇌에 존재하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어떤 “표상” 때문이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 내부구조가 결정된

“언어기관”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단지 인간은 언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며, 인간이 가진 그 수행장치는 다만 이 우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법칙, 즉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언어를 구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연법칙이란 곧 추상적인 언어규칙, 즉 추상적인 문법이다. 즉 다시 말해, 인간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에서, 인간이 그 언어능력을 두뇌에 하나의 모듈적 “기관”으로 표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당연히 얻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춤스키식의 “언어기관”이 아닌 “수행기관”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rule-following) 언어를 구사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능력, 또는 언어의 형식적 특성이 존재론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두뇌에 표상되었다기 보다는 그저 우주에 하나의 자연법칙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투라나 & 바렐라가 지은 『인식의 나무』(1995)라는 책에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현상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을 다음에 인용해 보겠다.

변형균의 하나의 피사름(Physarum)에서는 ‘포자’(Spore)가 자라나 세포로 된다 (아래 그림 참조). 주위가 축축하면 이 세포는 개체발생을 하여 ‘편모’를 가진 운동할 수 있는 세포로 된다. 주위가 말라 있으면 개체발생을 하여 아메바 같은 세포로 된다. 이 두 종류의 세포들이 분열을 되풀이하여 다른 많은 세포들이 생겨나며, 이것들이 구조접속을 바탕으로 서로 매우 가깝게 연결되고 융합함으로써 ‘변형체’(Plasmodium)가 생긴다. 이것은 다시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크기의 유실체(Fruchtkoerper)로 되어 포자들을 만들어낸다 (그림 22에서 위쪽은 많이 확대한 것이고, 아래쪽은 아주 조금만 확대한 것이다.) (p.85)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피사름의 일생은 다음과 같은 특이한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 (1) 피사름의 포자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발생경로를 갖는다. 즉, 주위가 축축하면 '편모'를 가진 운동할 수 있는 세포가 되고, 주위가 말라 있으면, 아메바 같은 세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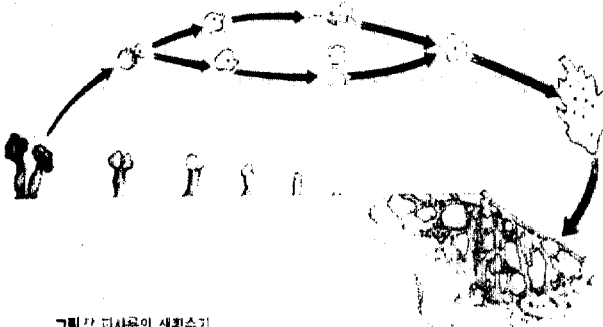


그림 22 피사름의 생활주기  
세포들이 융합하여 변형체를 이룬다.

- (2) 이 두 가지 종류의 방법으로 발생한 개체들이 서로 "구조접속"(구조적 상호작용)을 하여 개체발생의 새로운 단계로 이전한다.
- (3) 결론적으로, 이 피사름의 계통발생은 이러한 개체발생의 역사의 총화로 간주되어야 한다.

피사름이 흥미를 끄는 것은 그것의 개체발생의 역사에서 환경의 역할이 지대하며, 또한 발생된 다른 종류의 개체끼리의 "구조접속"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피사름의 개체발생과정을 살펴볼 때, 그 개체발생의 역사가 그 개체에 내장된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는 보기가 매우 힘들다. 하나의 개체에서 발생한 두 가지 종류의 개체가 — 하나는 '편모'를 지닌 운동성을 가진 세포, 다른 것은 아메바

와 같은 종류의 세포 — 서로 구조접속을 할 수 있으나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포자로부터 발생한 이후에만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지, 본래의 피사롬의 포자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하기는 무척 힘들다. 촘스키등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역사성”을 사상한 “이론적” 개체발생의 모델에서는 피사롬의 개체발생이 그 개체발생의 역사의 총화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설명하기가 힘든 것이다.

마투라나 & 바렐라는 전계서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세포라는 자기생산개체의 분자구성요소들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그물체 안에서 역동적으로 서로 얽혀 있어야 한다...자연에서 일어나는 다른 여러 분자변화들과 달리 세포의 역동성이 갖는 독특한 점은 다음과 같다. 세포 물질대사를 통해 생산된 구성요소들은 모두 그것들을 생산한 변화작용들의 그물에 다시 통합된다. 이 때 몇몇 구성요소들은 변화작용그물의 경계를 정하는 ‘테두리’를 이룬다. 이와 같이 공간 안에 무엇이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구조물을 형태학 개념으로 ‘막(Membran)’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부와도 같은 이 테두리를, 마치 수건이 직조기계의 산물이듯이 그저 세포 물질대사의 산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막은 구성요소들을 생산하는 변화작용그물의 크기를 한정할 뿐 아니라 이 변화작용 자체에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pp. 52-55)

이 이야기는 다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정보처리모델에는 입출력이 확정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처리모델 자체는 그것이 만들어낸 산물들과는 격리되어 있는 반면, 생물체의 “기계”들은 그것이 만들어낸 산물들로 하여금 다시 그 “기계”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자기조적적인” 운동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투라나 & 바렐라는 또한 인간의 인지능력이 컴퓨터에 비견되는 것

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신경계의 작업방식은 표상주의적이지도 않다. 왜냐하면 어떤 섭동작용이 일어날지, 또 그것이 신경계의 역동적 상태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지를 낱낱이 결정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매순간 신경계가 떠는 구조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경계를 입력·출력 모델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 사람이 만든 컴퓨터나 그 밖의 기계들처럼 기계와 사람의 상호작용 방식이 기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때, 이런 정의는 알맞다. 하지만 신경계는 (그리고 유기체는) 어느 누가 설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개체들이 자기 상태들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겪어온 계통발생적 표류의 결과다. ... 그러므로 신경계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정보'를 '입수'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경계는 환경의 어떤 속성들이 섭동이 될지, 또 그것들이 유기체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지를 결정함으로써 한 세계를 내놓는다. 두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는 통속적인 견해는 애매하다 못해 아예 틀렸다. (p.175)

같은 책의 78페이지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전자에 한 생물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보'가 들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틀렸다. 첫째, 세포의 특정 구성요소(DNA)를 여러 세대에 걸쳐 꽤 안정되게 복제하는 기제를 유전현상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한 생물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 DNA에 들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생산그물체의 한 구성요소인 DNA를 한데 얽혀 있는 그물체의 나머지와 분리했기 때문이다 ... 만일 그 주장이 맞다고 치면, 한 나라의 정치체도가 그 나라의 역사를 결정한다는 주장도 똑같이 옳을 것이다 ...

DNA 속에 인간의 개체발생의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있다고 친다면, 매우 극심하게 말해, 그것은 그 나라의 역사까지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생물학의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은 인정된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역사는 그 역사에서 하나의 나라 또는 하나의 민족의 초기상태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섭동"되느냐에 따



라 아주 다른 역사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외족의 침입으로 그 나라의 역사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역사를 가졌다고 할 때, 그 “외족의 침입”까지 유전자에 의해 예측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언어도 사회·역사적으로 초기에 어떻게 섭동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의 초기에서 서로 유사한 형식을 가졌던 영어와 독일어가, 역사적으로 상이한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처럼 매우 다른 형식을 가지게 된 것 역시 좋은 예이다.

## 6

이제 결론을 말하겠다. Varela, Thompson & Rosch가 지은 *The Embodied Mind*(1991) 에서 올바르게 지적되었듯이, 이상에서 필자가 논의한 내용은 이미 대륙철학에서 하이데거, Gadamer, Merleau-Ponty 등에서 널리 인지되었고, 또한 널리 받아들여졌다. 즉, 우리가 자연 속에서 세계를 인식할 때, 그 세계는 우리의 “몸” 즉 “신체성” 및 사회적 역사와 끊임없이 끊임을 수 없는 연계를 갖는다. 하지만, 데카르트나 영미계통의 분석철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신체성(human embodiment), 문화적 내포성(cultural embeddedness) 등 신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 그 자체를 포기할 때, 진정한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미국에서 흥미하고 있는, 인지과학자들에 의한 인지주의(cognitivism)도 영미계통의 분석철학과 동궤에 놓여있다고 하겠으며, 언어기관을 “정보처리기관”으로 생각하는 춤스키도 동일한 입장에서 있다. 오늘의 강의는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반론을 세우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쉘스카의 철학적/개념적 배경에는 난점이 존재하지만, 그의 언어학 그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의 초기가설로서 유용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며, 따라서 그의 언어학이론은 우리에게 하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단, 그의 배경적 철학은 결국 20세기 후반 서양사회에 팽배한 “기심”을 바탕으로 한, 이제는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과학이론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이러한 철학적/개념적 문제점들은 마땅히 비판되어야 한다.

이제 논의를 마치면서, 이화여대 정대현 교수의 『인지내용의 신체성』(2001)이라는 저서 속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인용하고자 한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은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사회적 내용은 몸들이 이루어내는 언어공동체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다. 결국 마음이란 사회적 내용의 개인적 체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끝으로, 정대현 교수가 다루었던 한 가지 문제, 즉 이상의 논의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언어의 다원주의적 상대주의를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서, 논의를 끝내고자 한다. 우리가 마음의 신체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회성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해서, 본 강의의 논의가 인간의 언어/마음의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여러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公)적 존재로서의 마음/언어는 플라톤주의적 세계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의 객관성은 보장된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플라톤주의적 존재 자체도 Plotinus나 Peirce 등이 주장한 것처럼 진화할 수 있으므로, “신체성의 역사”와 발을 맞추어 갈 수 있다. 물론, 인간이 신체를 통해서 발화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어떻게 플라톤주의적 진화를 이끄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의 연구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 참고문헌

- 강명운(1998), 「츄스키의 문제의 해결가능성에 관하여」, 『서강어문』14, 서강어문학회.
- 강명운(1999), 「츄스키의 언어관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오늘의 문법, 우리를 어디로』, 한신문화사.
- 강명운(2000a), 「언어: 플라톤주의적 견해」, 『생성문법연구』10-1, 한신문화사.
- 강명운(2000b), 「언어변화: 혼돈과 질서」,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 김수길 역(2001), 『중용(대유학당학술총서)』, 대유학당.
- 마투라나, 움베르토 & 프란시스코 바렐라(1995), 『인식의 나무』(최호영 옮김). 자작아카데미.
- 안동립 역주(1993), 『장자』, 현암사.
- 이동환 역해(2000), 『중용·대학』, 나남출판.
- 정대현(2001), 『심성내용의 신체성』, 대우학술총서 528, 아카넷.
- 핀커, 스티븐(1994), 『언어본능』(김한영·문미선·신효식 옮김), 도서출판 그린비.
- 하이데거, 마르틴(1998), 『존재와 시간』(이기상 옮김), 까치.
- 허택·이요성 역주(1998-2001), 『주자어류』, 청계.
- Chomsky, N.(2000), *Minimalist Inquiries, Step by Step*, Cambridge: The MIT Press.
- Chomsky, N.(2001), *Beyond Explanatory Adequacy*. ms. MIT.
- Descartes, R.(1984-91),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3 vols). trans. by J. Cottingham, R. Stoothoff, D. Murdoch and (vol. 3 only) A. Ken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tchell, R. & Florence Myles(1998), *Second Language Learning Theories*, Arnold.

Peirce, C. S.(1965),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The Ber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lotinus(1992), *The Enneads*, trans. by Stephen MacKenna, Larson Publications.

Uriagereka, J.(1998), *Rhyme and Reason*, Cambridge: The MIT Press.

Varela, F. E. Thompson & E. Rosch(1991), *The Embodied Mind*, Cambridge: The MIT Press.

■ ABSTRACT

Critical Reappraisal of Chomsky's Theory

Kang Myungyoon

In this paper, I offer a comprehensive critique toward Chomsky's linguistic and philosophical theories. First, I suggest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in his background ideas of the so called Minimalist Program. That is, I question Chomsky's ideas that Linguistic Faculty is an "optimal solution" of the performance systems in the human brain, arguing that it is an vacuous idea when we have no ideas concerning what the performance systems and the interfaces they share with the Linguistic Faculty look like. Furthermore, I discuss the topic of linguistic changes in this paper: languages continuously change, but Chomsky's theoretical framework has no tools that can accomodate it, although the aspect of linguistic change may turn out to be the central aspect of the linguistic faculty. In the area of linguistic acquisition,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 language devoted to writing in China, namely Classical Chinese, which must be viewed as something like L1.5, which means that languages cannot be digitally divided into L1 and L2, as Chomsky's theory forces us to do. In the sphere of biology, we have a number of biological organisms where many of their ontogenic

behaviors provide us with insoluble problems when they are viewed solely as leading a life genetically pre-determined.

■ 필자 :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교수